

요 약

- **보건의료산업에서도** 의료비 증가, 소비자의 관심증대 등으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확대
- **바이오인포매틱스 등**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**국내 및 세계 시장규모도** 지속적 확대 추세
 - 세계 BioInformatics 시장 : '12년 3억 달러→'17년 75억 달러
- **주요국은** 의학·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인체자원정보, DNA정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**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, DB로 우선 구축**
 - 글로벌 IT기업은 자사역량(데이터 분석역량, 로그정보 확보, 검색 데이터확보)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모델 개발 및 보급
- **우리 정부에서도** '유전자·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사업' 등 **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사업 추진**
 - 또한 정부3.0 기조에 맞춰 △의료기관 평가인증정보, △의약품 정보 등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활성화 기대
- 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**법·제도의 정비,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기술 및 인식개선, 데이터의 집중에 따른 권력화 등**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
 -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·관리·공개 및 공유·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 및 법적 근거 및 관리규정 수립 필요
 - 보건의료 빅데이터 진흥의 최대 난제는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 기술 및 인식개선
- 보건의료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**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기반을** 구축하고 산업생태계 조성
 -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,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, 활용모델 보급,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등